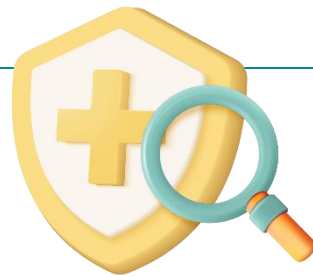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8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8월 18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다가오는 9월에 대비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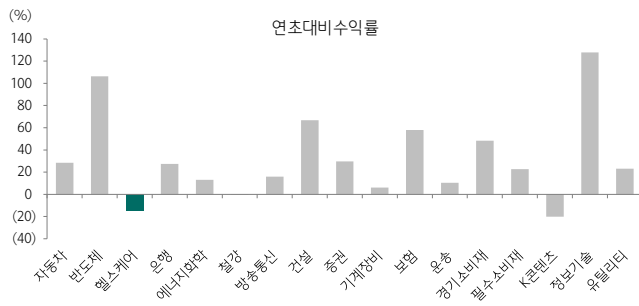
1) 2026년 8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 점검

- **아직 확신하기 이르지만, 상승 분위기 형성 중** 바이오텍으로의 명확한 수급은 시가총액이 큰 주요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테오젠이 8월 초 대비 약 50% 주가가 상승하였으나, 실적 기반으로 예상된 성과였어서 바이오텍 수급이라 정의하긴 어려운 것 같다. 아직은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보로노이,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에스티팜 등 시가총액 2조원 이상 주요 기업들의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기업 별로 하반기 학회 참석 일정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4Q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5월 전까지만 해도, 디앤디파마텍, 메디포스트, 지투지바이오, 인벤티지랩, 셀비온, 큐로셀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종목들의 자금 조달이 있었으나, 이후 주가 부진으로 많은 바이오텍이 조달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바이오텍은 L/O를 하더라도 새로운 L/O를 준비하기 위한 R&D를 이어가려면 결국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하반기 주가 부양에 힘쓸 것이다. 특히 '25년 상장한 후 최초 조달할 종목(알지노믹스, 인투셀, 프로티나, 에임드바이오 등)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4Q 내 주목할 만한 R&D 성과를 보여주는 학회 포스터 발표, R&D 데이 행사 등의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
- **주가가 회복되면 승강제를 더욱 주목하게 될 것** 상승 초반에는 변동성을 노린 단기 급락 종목이 주목받을 것이나, 코스닥 급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6월 초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하고 나면 초과 상승 재료로써 승강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실적 업데이트가 가능한 종목이 거의 없는 바이오텍의 경우 승강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제도 의도에 맞게 수급 기능을 한다면). 7월 발간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 기업인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에스티팜, HK이노엔, 동국제약(화장품)이 유력하고, 인제니아테라퓨틱스도 9/18일이면 주요 오버행올 해소하므로 10월 이후를 기조하여 선정하는 경우 신규 상장 종목도 편입 가능함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지켜볼 만하다. 셀트리온제약은 세그먼트 기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조건을 미충족하였지만 재무실적 기준으로는 선정 가능성이 높다. 1군 편입 후보군은 다소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과 달리 편입되는 기회와 탈락하는 리스크도 있다. 다만 2군으로 편입되는 기업들도, 단기에 L/O, 대규모 마일스톤 수령, 시가총액 상승 등으로 부족했던 1군 편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1군과 2군의 경계선에서 지켜볼 만한 기업은 디앤디파마텍(MASH L/O), 오름테라퓨틱(마일스톤 수령), 오스코텍(상속세/지분 이슈 정리), 알지노믹스(추가 L/O 또는 마일스톤 수령)를 예로 들 수 있다. 코스닥150이 시가총액 중심이었기에 승강제는 그와 차별화된 정성 평가 지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기에 명확한 기준이 공개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2) 2026년 8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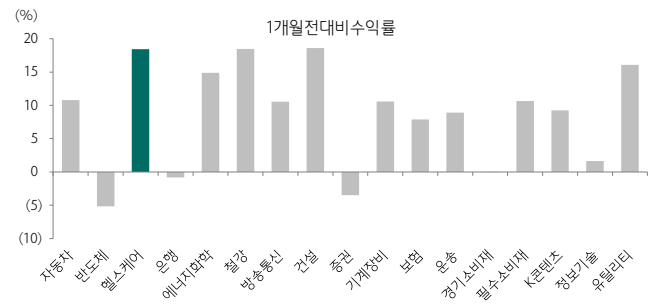
- **8월 코스피 Top pick: 삼성바이오로직스(신규), SK바이오팜(유지)**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노사 합의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모두가 기다리는 CAPEX, 가이던스 상향, 대규모 추가 수주 가능성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SK바이오팜은 이번 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고, 엑스코프리의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환율이 하락 중이므로 Valuation 저평가 요인인 2nd 프로덕트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 적절한 분위기이다.
- **8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1) 알테오젠은 실적과 추가 기술이전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가 기술이전과 국민성장펀드의 수혜, 승강제 1군으로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 2) 리가켄바이오도 서브라이선스로 하반기 추가 L/O 가능성 높은 분위기이고,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도 받아 승강제 1군으로 매우 유력하다. 올릭스는 하반기 Top pick 전망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 CPS 전환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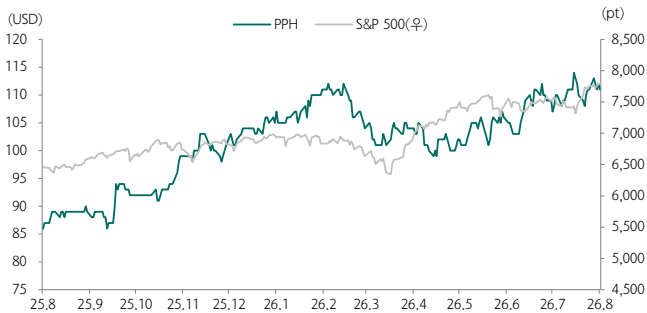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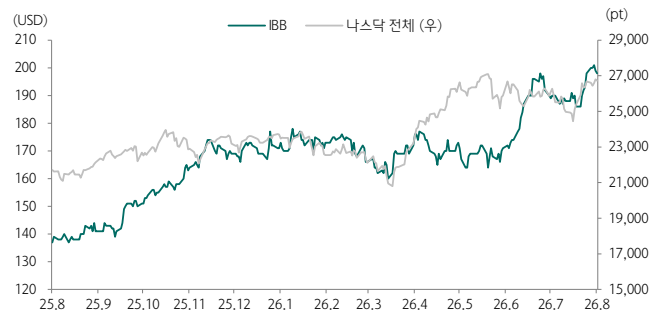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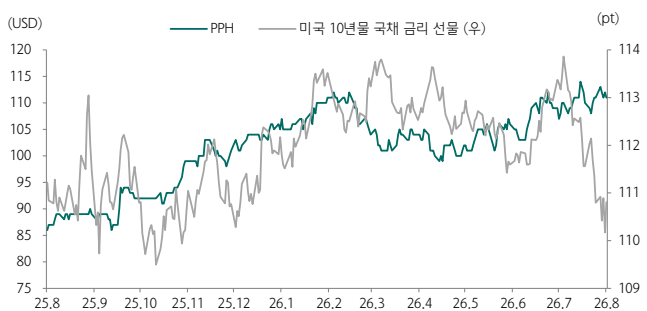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9.99%), MSD(10.19%), Novartis(10.10%), Novo Nordisk(5.13%), Pfizer(4.92%), BMS(4.92%), McKesson(4.59%), AbbVie(4.48%), J&J(4.41%), GSK(4.1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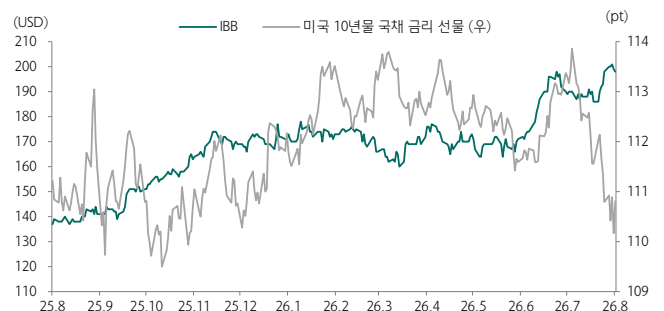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Amgen(8.65%), Vertex Pharmaceuticals(8.05%), Gilead(7.17%), Regeneron(6.08%), Argenx(3.33%), Natera(3.17%), Revolution Medicines(2.87%), Biogen(2.30%), Illumina(2.26%), Alnylam(2.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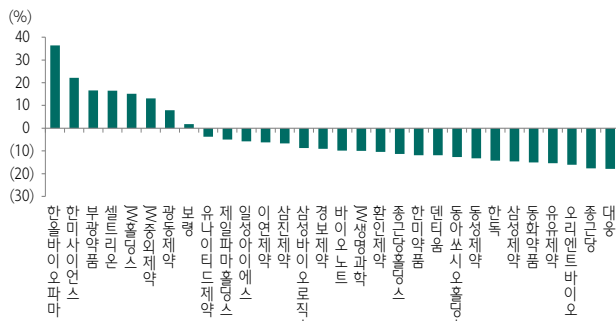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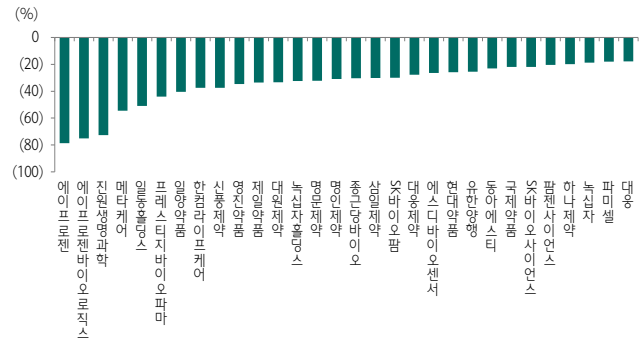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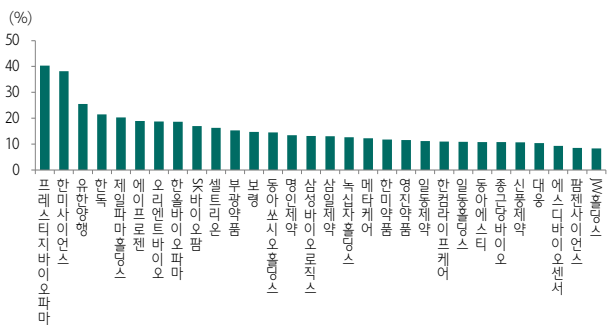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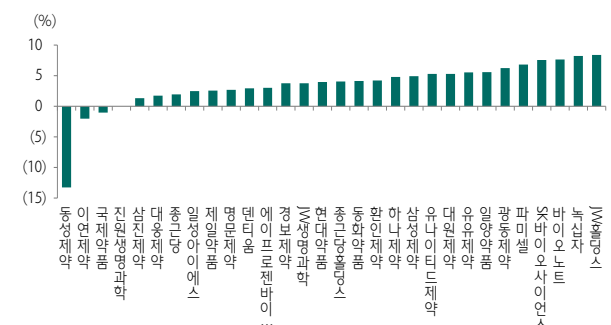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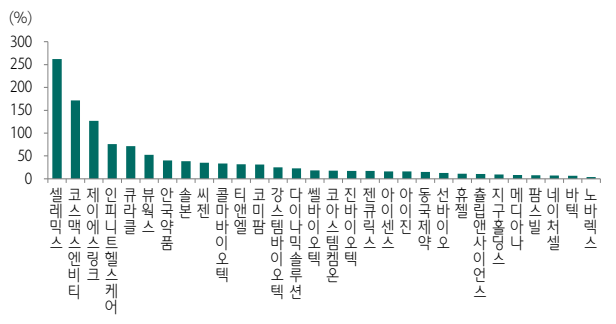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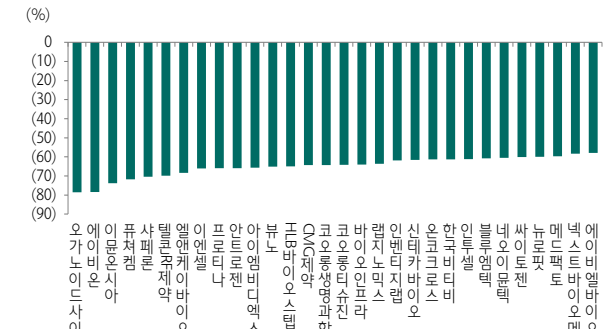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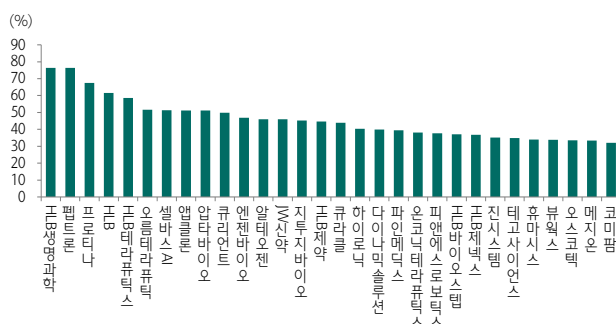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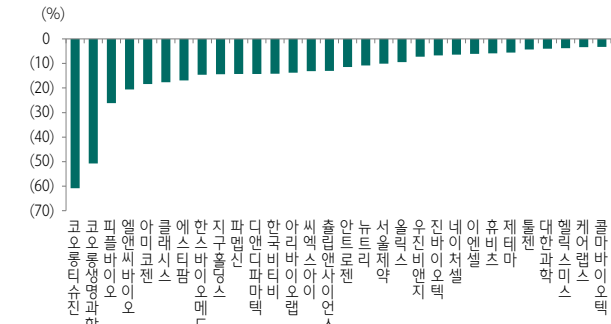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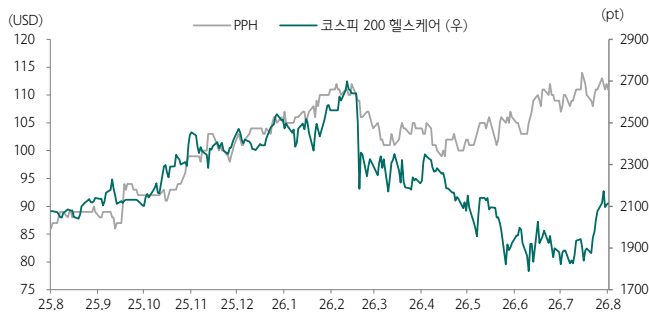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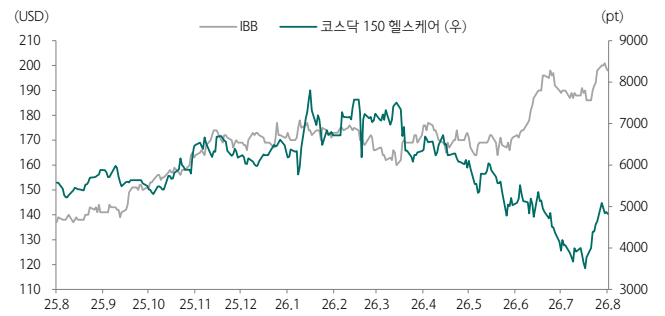
주: 8/14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8/14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9.99%), MSD(10.19%), Novartis(10.10%), Novo Nordisk(5.13%), Pfizer(4.92%), BMS(4.92%), McKesson(4.59%), AbbVie(4.48%), J&J(4.41%), GSK(4.1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텍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8/14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Amgen(8.65%), Vertex Pharmaceuticals(8.05%), Gilead(7.17%), Regeneron(6.08%), Argenx(3.33%), Natera(3.17%), Revolution Medicines(2.87%), Biogen(2.30%), Illumina(2.26%), Alnylam(2.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8/4 이후)

[8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미국 BlackRock Fund Advisors

-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미국 BlackRock Fund Advisors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확대하는 중. 1) 8/4일 HLB 지분 확대. 7월 초 리보세라닙에 대한 세 번째 FDA 승인 실패로 인한 주가 급락 후, 안정화된 때에 지분을 6.05%에서 7.15%로 확대. 2) 8/11일 유한양행 5.07%에서 6.05%로 확대하였는데, 올해 5월 보유 지분을 5% 초과로 신고한 후 추가 확대한 것. 3) 7/31일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지분을 5.03%까지 확대한 바 있음.

[8/3] Pathos AI, 중국 Alphamab oncology로부터 TROP2×HER3 ADC 도입 (총 규모 \$2.2B)

- 계약 구조는 TROP2×HER3의 이중항체 ADC인 “JSKN016”에 대한 중화권 외 권리에 관한 것으로, 선금금은 \$125M, 마일스톤 최대 \$2.09B, 로열티 별도임.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상 진행 중이고, SC 제형의 임상1상도 진행 중. Alphamab은 PD-L1 억제제인 Enweida와 HER2 이중항체인 anbenitamab을 중국에서 판매 중임.
- Pathos AI는 바로 다음 날인 8/4일 아스트라제네카와도 ER+/HER2- 유방암 환자 대상 전임상 단계 PROTAC 후보물질인 AZD4241의 임상을 위한 협력 계약 체결. 다만 이 계약은 해당 후보물질의 임상 진입 전까지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구체적인 계약 금액 등 비공개(전임상 단계에서의 R&D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부담하지 않는 의미로 이해됨).

[8/4]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한국투자파트너스”

-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 선정. 1700억원 결성할 것. 여기에 투입되는 공공자금은 총 90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700억원, IBK기업은행 1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00억원으로 구성됨. 펀드 자금의 60% 이상 혁신신약,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실제 임상3상을 추진해야 함. 투자 대상은 10개 내외. 실제 임상3상을 “추진”하는 기준(IND를 신청한 상태 이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지 등)은 규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1) 국내외 임상2상 완료, 2) 국내외 조건부허가 진행 중이거나 받았을 것, 3) 국내 품목허가 또는 3상 완료했을 것” 조건 중 하나 이상은 우선 충족되어야 함.
-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를 포함한 바이오 정책펀드 규모는 총 9496억원.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8/6] 에이비엘바이오, 미국 파트너사인 Compass Therapeutics가 tovecimig에 대해 연내 FDA에 BLA 제출할 것

- Compass Therapeutics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개발 중인 진행성 담도암(BTC) 치료를 위한 DLL4xVEGF-A 타겟 이중항체인 ‘tovecimig(ABL001)’에 대해 연말 FDA로부터 피드백 받고, 연내 BLA 제출할 것임을 언급함. 또한 FDA 피드백 일정 전 10월에 열리는 ESMO에서 구두 발표도 진행할 예정.
- 표준 1차 치료요법인 Gemcitabine+Cisplatin+Durvalumab 과 tovecimig를 병용하는 연구자주도임상(ST) 진행 중이고, 그 외 대장암 2차 치료제, ‘교모세포종’ 2차 치료제로도 IST가 진행 중임.

[8/6] 부광약품, 자회사인 Contera Pharma의 RNA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 계획

- Contera Pharma는 임상 2상 단계의 파킨슨병 개량신약 프로그램인 CP-012와 RNA 플랫폼을 보유. 이 중 RNA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중. Contera Pharma는 세 개의 플랫폼을 보유하는데, 1) 질병 관련 표적 RNA를 탐색하는 AttackPoint Discovery, 2) 표적에 대한 ASO를 설계하는 OligoDisc, 3) 표적에 대한 저분자 화합물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SpliceMatrix. 여기에 더해 AI 기반 GENEVA;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 부위를 AI로 예측하는 SpliceAI; 및 핵산치료제 전달 플랫폼 LipidLink를 공개. LipidLink는 간 외 조직으로 전달 범위를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작동 원리나 구조를 공개하지는 않음.
- ‘25년 Lundbeck과 CNS 질환 대상으로 RNA 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아직 개발 성과나 후보물질 도출 여부 등이 공개되진 않음.

[8/7] Moderna, 계절성 mRNA 독감백신 FDA 승인 획득

- mFlusiva(mRNA-1010)로, 50세 이상 성인 대상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승인됨. mRNA 독감 백신으로는 미국 최초의 승인. 다만 50~64세 대상(4만 명)으로는 정식 승인(Standard approval)이고, 65세 이상은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임. 기존의 독감 백신과 효과를 비교하는 4상 임상도 진행할 예정. 50~64세 대상 3상에서 표준 독감 백신 대비 감염 위험 26.6% 감소함을 확인함. 다만 이상 반응은 mRNA 백신군에서 더 많았고 대부분 1~2일 간 짧은 경증. mRNA는 기존의 항원 단백질 대비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유행성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8/10] Jazz Pharmaceuticals, 희귀 유전성 질환 개발사 Actio Biosciences(미국) 인수 (최대 \$1.32B)

- 이번 계약은 선금금 \$820M, 조건부 마일스톤(CVR) 최대 \$500M. Jazz Pharmaceuticals는 CNS 질환 전문 제약사로, Actio를 인수함으로써 희귀 유전성 질환 자산을 확보하게 됨.
- Actio는 2021년에 설립된 미국 바이오텍. Actio의 주요 파이프라인 ABS-1230은 KCNT1 이온채널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 저분자물질로, 희귀 유전성 뇌전증인 KCNT1 뇌전증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미국 내 약 2,500명의 소아 환자들이 있고, 하루 수십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으로 현재 KCNT1 타겟의 치료제는 없음. 임상 1b/2상 중, FDA FastTrack, 희귀 소아 질환(RPD),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모두 확보.
- 인수 완료 후에 Actio 팀은 샤르코-마리-투스병(CMT2C) 치료제로 개발 중인 TRPV4(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4, TRPV4) 저해제 ABS-0871를 가지고 스피노프 회사를 설립할 예정. Jazz도 이 신설 법인의 소수 지분을 확보할 것.

[8/11] JW중외제약, 통풍신약 후보물질 ‘에파미뉴라드 6mg’ 다국가 임상3상 일부 성공

- 에파미뉴라드(URC102)의 다국가 임상3상 타파인 공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 치료제인 ‘페복소스타트(Febuxostat)’와 이중 맹검 비교 임상.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5개국에서 진행.
-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의 혈청 요산(sUA) 농도 6mg/dL 미만 달성 환자 비율’에서 6mg 투약군 50.0% (76/152명) vs. 대조군 40mg (38.3%, 59/154명)으로, 대조군 대비 통계적 우월성 관찰. 다만, 고용량군인 9mg 투약군은 59.6% (87/146명) vs. 대조군 80mg (63.3%, 95/150명)으로, 대조군 대비 유사한 치료 반응을 보였지만, 비열등성 기준치는 미충족. TEAE 등 부작용 사례는 대조군 대비 유의한 차이 없었음. 통풍 치료제는 복용량군 수요가 높지만, JW중외제약은 내년 국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품목허가신청할 계획.
- 에파미뉴라드는 사람 요산수송체(human uric acid transporter-1, hURAT1)의 선택적 저해제로 경구제형으로 개발. 동사는 8/14일 펩타이드계 비만치료제 Bofaglutide(GLP-1 타겟)의 국내 임상3상을 위한 IND도 신청함.

[8/11] AZ-BMS 합병설과 무산

- 8/2일 AstraZeneca와 BMS의 합병설 등장. 합병 후 기업가치로 약 \$400B로 추산되며 매출액 기준 세계최대, 시가총액 기준 세계 4위의 제약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합병설 후 AZ 주가는 9% 하락하고, BMS는 인수 수혜자로 인식되며 소폭 상승.
- 주식 교환을 중심으로 한 거래 구조와 자금조달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재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는 경우, 표적항암제, ADC, 혈액암 치료제, CAR-T 세포치료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항암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음. 그러나 각 사의 주요 품목 중 AZ의 Imfinzi(Durvalumab, PD-L1 항체)/Imjudo(Tremelimumab, CTLA-4 항체)와 BMS의 Opdivo(Nivolumab, PD-1 항체)/Yervoy(Ipilimumab, CTLA-4 항체)/Opdualag(Nivolumab + Relatlimab 복합제)가 여러 암종과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구축한 상태. 따라서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이 기업결합 심사에서 일부 제품이나 파이프라인의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음. 그 외 BMS의 주요 제품들(Eliquis-항응고제, Opdivo, Revlimid-혈액암 등)의 특허절벽, AZ의 매출 감소와 대규모 주식 발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큰 점 등도 문제시 됨. 이번 합병 시도에서 AZ에게는 미국 사업 확대와 확실한 장기 성장 프로젝트 도출, BMS에는 Eliquis와 Opdivo 이후의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취약한 영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노출하게 됨.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밑줄은 이번 발간에서 업데이트 된 것)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9월	09월 12일	WCLC (세계 폐암학회)	2026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Seoul, Korea	보로노이, 유한양행 (관련기업: 에스티큐브)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리가캠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Compass) (관련기업: 한미약품, 지아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디앤디파마텍 (관련기업: 한미약품,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12월 08일	SABCS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	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Texas, USA	리가캠바이오(ICSUDA)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리가캠바이오(ICSUD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애플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8.14 기준)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3Q25	2Q26	3Q26F	2025	2026F	3Q25	2Q26	3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6,756	1,029.0	1,393.7	1,450.9	4,162.5	5,535.6	301.4	451.8	509.3	1,168.5	1,853.7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71,658	1,660.2	1,320.9	1,337.9 (F.1,452.2)	4,557.0	5,495.1 (F.5,601.9)	728.9	586.4	604.0 (F.642.8)	2,069.2	2,416.2 (F.2,446.0)
삼성에프스홀딩스 (TP: 620,000원)	10,787	Nr	391.9	480.1 (F.488.3)	251.7	1,857.7 (F.1,867.0)	nr	58.7	63.9 (F.74.9)	-63.6	246.8 (F.256.6)
유한양행	6,667	570.0	639.5	604.7	2,186.6	2,345.1	22.0	66.9	29.3	104.4	129.1
녹십자	1,510	609.5	421.2	587.6	1,991.3	1,999.5	29.2	1.7	33.3	69.2	73.0
한미약품 (TP: 610,000원)	5,105	362.4	467.3	383.6 (F.407.0)	1,547.5	1,681.7 (F.1,716.5)	55.1	131.1	53.2 (F.38.6)	257.8	297.9 (F.284.2)
대웅제약	1,444	411.8	448.5	461.3	1,570.9	1,665.7	56.9	68.1	87.1	196.8	231.1
HK이노엔	1,180	260.8	267.2	275.2	1,063.2	1,098.5	25.9	30.0	31.4	110.9	130.4
종근당	943	429.8	478.5	476.0	1,692.4	1,880.2	21.0	18.6	19.1	80.6	77.1
휴온스글로벌	323	211.2	214.1	nr	847.5	nr	20.3	19.5	nr	90.6	nr
동아에스티	375	215.9	224.7	225.9	808.8	845.7	14.0	6.3	10.6	0.6	41.8
보령	787	280.0	279.6	282.5	1,017.4	1,057.7	29.4	23.8	29.8	65.1	80.2
SK바이오팜 (TP: 150,000원)	6,837	191.7	247.4	251.7 (F. 252.0)	706.7	977.7 (F. 972.7)	70.1	97.1	92.0 (F. 96.3)	203.9	353.3 (F. 340.1)
동국제약	892	226.8	258.9	262.6	926.9	1,053.0	24.8	26.1	28.4	96.6	111.6
에스티팜 (TP: 190,000원)	2,221	81.9	108.5	99.8 (F.101.5)	331.7	417.7 (F.423.6)	14.7	18.3	18.1 (F.17.8)	54.9	75.4 (F.78.3)
셀트리온제약	1,951	138.2	153.3	nr	536.4	nr	16.1	19.3	nr	56.1	nr
JW중외제약	672	200.0	222.0	nr	775.3	nr	32.0	33.3	nr	94.5	nr
일동제약	481	145.5	150.9	153.7	566.9	585.0	6.8	5.0	8.0	19.5	35.8
대원제약	179	143.9	152.8	148.2	605.4	628.4	-10.4	-0.0	2.5	3.5	19.4
제일약품	148	134.8	146.6	nr	567.2	nr	9.8	-7.0	nr	20.7	nr
바이넥스	236	45.4	37.8	53.0	168.5	186.1	0.2	-9.2	3.2	-4.5	-4.4

주1: 2Q26→3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시총 상위 종목 중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은 제외

자료: Quantil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8/14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 종결은 여전히 불확실

- '26년 가이던스: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 반영되어 3Q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 높아짐. 이익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음.
- 노조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회사 추정치 1,500억이고, 이는 3Q26에 반영될 예정. 8/14일 노사가 사후조정에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될 것. 일정은 구체적이지 않으나, 노조쟁의가 종결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하반기에는 록빌 공장으로 인한 매출 발생(3Q 1천억원 예상) 기대. 7/20일에 인수 공시된 PolyPeptide Group으로부터의 매출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20,000원, 유지): 유통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MSCI 편출, 키트루다BS의 국내 판매를 위한 작업 시작

- '26년 가이던스: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3Q26F 매출 4,893억원(YoY+20.4%), 영업이익 1,083억원(YoY-16.1%, OPM22.1%) 전망. 3Q에는 Biogen 향으로 SB2(레미케이드BS)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2026년 연 매출액 YoY+11.9%, OPM21.7%로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 8월 MSCI 리밸런싱에서 유통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편출 결정되었고, 리밸런싱일은 8/31일이므로 효과는 9/1일부터 반영.
- 키트루다BS 국내 출시를 위해 허가신청 및 MSD 상대로 동결건조제형 특허(특허등록번호 KR10-2031020, 존속기간 2032년3월29일)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국내 키트루다 물질특허는 2028년 6월 만료 예정임. 이에 대비하여 제형, 제조방법, 투여방법, 용도/용법특허 등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라 MSD측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있음(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는 일반적임).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우수한 실적, 꾸준한 기술이전

-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은 최종 무효 심결로 종료. 남은 14개도 패밀리 특허도 순차적으로 무효 심결로 종결되는 분위기.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에 따라 가져본 명령 취소 건이 Pending 중이나, 영국은 할로자임 측 특허 포기로 종결.
- MSD의 2Q26 실적발표에서 Qlex 2Q 매출액 \$463M (QoQ+262%), 상반기 누적 매출 \$590M 확인. \$0.5B 이상을 달성하며 2Q에 첫 번째 sales milestone 수령. 하반기 누적 매출액 전망치 \$4B로써, 4Q까지 분기 마다 sales milestone을 수령하며 견고한 실적 성장세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 MSD는 '27년 말 Qlex의 침투율 30~40% 달성을 목표로 함.
- 8/5일 선급금 및 마일스톤을 포함한 \$365M(약5,219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로열티 별도). 최근 계약이 품목 당 \$285M~300M임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큰 상태. 선급금은 비공개이나 기존의 계약들을 보았을 때 \$20M 수준일 것으로 예상. 제품은 비공개이나 신규 modality인 바이오의약품으로, modality도 계속 확장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건이었음. 향후 추가 기술이전 계속 될 것.

한미약품 (TP 610,000원, 하향): 비만 파이프라인 성과와 MSD의 반전을 기다리며

- '26년 가이던스: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달성(완료).
- 2Q26 실적 확인 후 목표주가 하향. 북경한미의 실적이 계절적 비수기를 고려하여도 매우 부진함에 따른 매출 추정치 하향과 Aptose를 100% 자회사 편입함에 따른 영업이익률 전망치 하향함에 따름. 추가 회복을 위해서는 북경한미의 실적 정상화와 Aptose 비용 절감 정책이 중요. 한편,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유지.
- 한편,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 7/29일 신동국(한양정밀 회장)이 제기한 '임주현(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주식 100억 가압류 신청'이 인용 결정됨. 가압류 인용 결정 이유는 임주현이 4차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 (본안소송 전 임시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행사가 결정된 것은 아님). 4차 협약 당시 보유 주식으로 밝힌 9.15% 가운데 2.7%를 에퀴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거래했고, 에퀴티퍼스트가 이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주현이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또한 송영숙(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킬링턴유한회사도 신동국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25년 6월 추진된 시니어케어 사업에 대해 신동국이 반대를 하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이라는 주장. 1심 선고 예정일은 올해 10/1일.
- 현재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은 신동국+한양정밀 35.1%(임종윤 및 그의 가족 지분 전량 신동국이 매입), 창업주 일가 측 34.4%.

SK바이오팜 (TP 150,000원, 유지): 현저한 저평가, Azetukalner는 Cenobamate와 같 길이 다르므로 경쟁약품이 되기 어렵다

- '26년 가이던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던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으로 증가(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 2Q26 실적은 매출 2,474억원(YoY+40.3%, QoQ+8.6%), 영업이익 971억원(YoY+56.9%, QoQ+8.1%, OPM39.2%)으로 스프라이즈. 이러한 속도로 Xcopri의 연간 추정 매출액은 \$585M로써 가이던스 상단인 \$580M 달성은 매우 쉬워짐. 그 외 하반기엔 브라질 NDA 승인 및 Xcopri 런칭에 따른 매출, 일본 허가 획득(Ono pharma가 '25년9월 NDA 제출)에 따른 마일스톤을 기대. 2Q26 실발에서도 가이던스 변경은 없었음.
- 한편 Xenon의 Azetukalner 출시에 대한 우려는 내려 놓아도 될 것. Azetukalner는 Cenobamate 대비 효능적 이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뇌전증 환자가 결국 병용에 이르게 되는 임상적 현상을 고려하면, Azetukalner는 임상에서 병용 약물로써 Cenobamate 대비 이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Cenobamate는 Briviact의 제네릭 출시로 Cenobamate와의 병용 needs가 높아지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음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NextCure와 공동개발하던 LNCB74(B7H4-ADC)의 단독 개발권 확보

- NextCure와 공동개발하던 LNCB74(B7H4-ADC)의 단독 개발권을 확보하게 됨. 이 파이프라인은 두 회사가 R&D 비용과 향후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하는 계약에 근거해 개발 중이었음. NextCure는 자가면역·염증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어비어 테라퓨틱스(Avere Therapeutics)에 역합병 됨. 합병 주체인 어비어의 선택에 따라 건선 및 궤양성대장염 임상 개발에 재원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LNCB74 권리를 리가캠바이오에 넘긴 것. LNCB74는 NextCure의 암세포 특이적 B7-H4 표적 항체에 리가캠바이오 ConjuAll 기술과 MMAE 페이로드를 결합한 ADC. 현재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1상(NCT06774963)을 진행 중.
- 당사는 이번 변경 계약으로 LNCB74에 대한 단독개발자(Sole Developing Party) 지위와 단독 개발 권리를 확보. 지금까지 NextCure가 개발에 기여한 것이 있고, NextCure의 항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향후 기술이전이나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과 판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일부 지급하게 됨(1상 중간 단계까지만 개발했으므로 기여율은 매우 낮을 것).
- '26년은 Ono(LCB97; 7/9 유입),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될 것. 서브라이선스 가능성 높음. TROP2 ADC (LCB84)의 임상1/2상 업데이트 및 그에 따른 옵션 행사 이벤트도 중요. MSD는 PD-1×VEGF + TROP2 병용 임상을 계획하고 있어, TROP2 ADC의 병용 전략이 향후 주목받을 전망.
- 하반기에는 1) HER2 ADC (LCB14)의 중증3상 최종 결과 확인 및 글로벌 임상1b의 Enhertu 내성 유방암 환자를 포함한 중간 결과 발표, 2) ROR1 ADC (LCB71)의 임상1b 추가 코호트 중간 결과 발표, 3) CD19 ADC (LCB73) 임상1a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Pfizer의 MET-224o 개발 중단 선언, 그러나 MET-875o가 있다

- Pfizer가 Metsera로부터 인수한 비만 치료제 중 경구 GLP-1 후보 MET-224o의 개발을 중단하여 주가 충격. 그런데 Metsera와는 6개 품목에 대해 기술이전을 하였고, 그 중 이중 작용제(GLP-1/GIP)인 MET-875o는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중단은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일 뿐, ORALINK의 가능성을 저평가할 지표는 아니라는 판단.
- 하반기는 MASH 치료제 DD01의 기술이전 가능성(DD와 Term Sheet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4Q26~1Q27로 추정, Efimosfermin의 L/O 규모 약 3조원임을 참고), 2) Pfizer의 경구용 펩타이드 제형 MET-875o 개발 속도 높임으로 인한 기대감 회복, 3)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 기술이전이 기대할 이벤트.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발표 성공적, 3Q에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변동 없음)

- GI-101/101a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표준치료 실패 환자 단독 36명, 병용 48명 등록) 데이터 발표: 단독의 경우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방광암 환자 PFS 13.9개월 (vs. 파드셀 PFS 6개월)/ 신장암(n=10)에서 ORR 40%, DCR(질병통제율) 70% 확인, PFS 미도달/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성 입증하였고, 4차 이상으로 투약 중이나 ORR 40%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판단. 현재 2상 준비 중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①번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3Q 예상).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순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드디어 기다리던 에피스와의 본계약 체결 (변동 없음)

- 바이오에피스가 Nectin-4 타깃 항체에 NxT3를 적용한 ADC(SBE303)에 대한 물질 권리 확보를 위해 본계약(후속 계약)을 체결함. 계약 규모나 구조는 비공개이나, 지금까지의 관계가 단순한 공동개발 형태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함. 바이오에피스는 고형암 환자 149명에 대해 글로벌 임상1상을 진행 중(NCT07524348). '23년 12월 계약 당시 다섯 개 표적에 대한 연구를 염두하였으나, 나머지 4개에 대한 후속 개발도 기대. 다만 human data를 확인한 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7년에 추가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 TC-6146RO에 대한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도 진행 중.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나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키트루다 병용 첫 환자 투여, 하반기는 조건부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릴 것 (변동 없음)

- 5월 ASCO 데이터 요약: 총 91명의 환자, 3L 이상의 PSMA 전체 환자군에서 mOS 13.31개월, 중앙 rPFS 11.04개월. VISION 연구 mPFS 8.7m, mOS 15.3m. VISION 연구는 SoC 투약을 허용한 반면, Lu-Pocuvotide는 표준 치료가 불가능 환자를 대상. 또한 림프구 부작용이 없어 키트루다 병용 결과를 기대할만 함.
- 7/30일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의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짐.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플루빅토 단독 투여 대비 mOS를 추가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Lu-Pocuvotide는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조건부승인은 예상 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GIFT track으로 국내 승인을 획득한 세포치로제 기업 사례가 신청 후 1년4개월이었는데, 당사는 물질이라 승인까지의 난이도가 낮은 걸을 고려하면 연내 조건부승인을 기대할 수 있음 ('25년12월 신청 → 타 기업 사례로 보면 '27년4월이나 그 보다 빠를 것)

렘트론 (Not Rated): Tirzepatide 개발은 진행 중인 건가, 아닌 건가 (변동 없음)

- Lilly가 원하는 장기지속형 제제에 활성물질로 Tirzepatide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이 짙어지며, 주가가 크게 하락함. MTA 계약은 10/7까지만인데, 통상적으로 MTA 계약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내 양사가 주고 받은 (미공개)물질은 폐기해야 하므로, Lilly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7일 전 새로운 MTA 계약이 체결될 것. 따라서 여전히 10/7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회사는 해당 사건 이후 '1) 오송 제2공장 추진 현황: 건축(변경)허가 절차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 7월부터 8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이후 9월 중 착공허가 및 착공을 목표. 2) PT403: FD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505(b)(2) 허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국내 IND 신청을 위한 제반 자료 준비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BI 향 3Q 본계약과 CDMO 매출 기다리는 중, 고농도 항체 SC 기술 강조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그 외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년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고농도 항체 SC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 고농도 항체 SC 기술은 '25년 10월 Halozyme이 Elektrofi를 인수하고, 이후 Vertex와 L/O 체결하며 알려짐.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에피스와 장기지속형, 셀트리온과 고농도 항체 SC 플랫폼 기술 협력 (변동 없음)

-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소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도 체결함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 동사도 셀트리온과 고농도 항체 SC 플랫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에스티팜 (TP 190,000원, 하향): 컨센서스 하향에 가이던스도 톤 다운, 그래도 과도한 하락 (변동 없음)

- '26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매출 4% 상회, 영업이익 -7% 하회함. 여기에 더해 현재 연간 컨센서스가 가이던스 대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 회사의 자신감이 낮아 주가가 크게 하락함. 다만 '26년 6월 말, 총 수주잔고 5,308억원 역대 최대. 매출 4Q>2Q>3Q>1Q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Q까지 실적 성장은 분명할 것으로 전망. 3Q에 OPM이 다시 17% 대로 회복되며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Arrowhead의 Plozasiran의 sHTG 3상 데이터가 고객사인 Ino의 Olezarsen 대비 우수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Olezarsen향 수주는 '27년까지 남기일이고 이 때 Plozasiran은 매출 발생하지 않음('28년 매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그 사이 수천억대의 상업화 올리고 수주가 따라줄지 여부가 중요해짐.

올릭스 (Not Rated): 탈모 치료제(OLX104C)의 호주 1b상 공식 종료 확인

- 탈모 치료제(OLX104C)의 호주 1b상에서 7/27일 마지막 환자 투여를 완료. 현재 최종 투여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 중이고, 8월 내 종료될 것. 1b상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2a상 단계로 진입할 것 (OLX104C는 임상 1b/2a상으로 진행 중). 올해 4분기 경 2a상 진행과 함께 1b 데이터의 공개도 기대함.
- 그 외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 (Lilly의 옵션행사), 유베르나의 시장 출시 계획 등도 4Q까지 이어져 기대할 이벤트.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의 비만 원숭이 데이터는 6/22일에 공개된 것으로 고려하면 기술이전 시기는 이르더라도 1H27로 전망.
- 최근 주가 하락(7/20일) 요인 분석: 1) 먼저 3월 정기 주총 노이즈가 지적됨.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이 부결되며 등기이사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가 기사화됨. 그러나 이는 7/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되어 해소(통과). 2) siRNA 개발사 Alnylam이 2Q26 실적 부진에 따라 가이던스를 \$0.2B 하향함. 실적발표는 7/30일에 있었으나, 일찍이 시장에 알려졌을 가능성을 염두. 3) '25년8월에 발행한 CPS 1,150억원은 전환청구가능일이 8/31일(8/29일 휴일)이므로 이를 우려하여 한 달 넘게 앞서 매도할 가능성은 낮음. CPS의 오버행도 4Q에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점, 공급이 4Q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8/31일부터 일찍이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에는 Alnylam 실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 4분기쯤 회사가 업데이트할 이벤트를 기다려 볼 것.

알지노믹스 (Not Rated): HCC 치료제의 RECIST 값 update 중, 하반기 임상 업데이트 기대 (변동 없음)

- 최근 Regeneron이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난청 유전자 치료제인 "Otarman (AAV 기반)"을 승인받으며 인공 와우를 대체할 치료제 등장함. Lilly도 최근 동향을 보아 유전자치료제 및 청력 상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Lilly와의 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 한편 4월 AACR에서 임상1상 중간결과 공개한 간암 치료제 RZ001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이어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지정도 획득함. RMAT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예비임상 결과를 통해 미충족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최근 임상2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짐. mRECIST 기준 ORR 61.5%, CR 23%/ RECIST 기준 ORR 38.5%(confirmed), 46.2%(unconfirmed)이었음. 여기서 RECIST 기준 Unconfirmed 환자가 추적 관찰에서 Confirmed 반응으로 확인됨. mRECIST는 활성 암세포의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 관찰시 RECIST도 반응이 확인되는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3Q26-4Q26 이벤트(2026.08.14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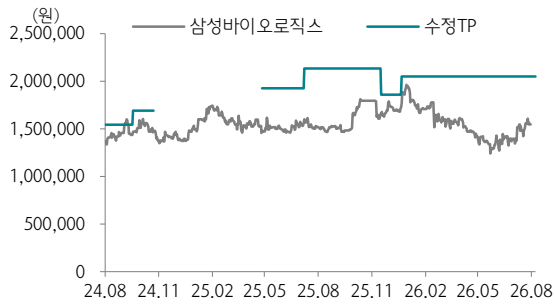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3Q26	4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548,000	32.4%	• CAPEX 확대, 수주, 노사 분쟁 종료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가이던스 상향)	• CAPEX 확대: 미국 록빌 공장 또는 6공장 증축
삼성에프스홀딩스	620,000	433,500	43.0%	• -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 SBE303 발표 1H27 전망
알테오젠	580,000	314,000	84.7%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투자, 승강제 등)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코스닥 잔류 및 무상증자 결정 (7/16) •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및 WAC 상승 확인됨(4월부터 MoM 상승 중)
한미약품	610,000	398,500	53.1%	• HM17321(근육증가)의 SAD 데이터 공개 •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허가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ESMO 관련	• 6/1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O로 가이던스 달성하였으나, 추가 L/O 전망 • MASH 학회 발표하는 경우 11/5 AASLD 유력 (F4 임상 포함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에페글레나타이드 본격적인 판매는 27년부터 기대
SK바이오팜	150,000	87,300	71.8%	• -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2 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캠바이오	220,000	113,900	93.2%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승강제) • J&J의 2상 진입 소식	• 파트너사 서브라이선스 • 10월 ESMO 발표 • 12월 ASH, SABCS 발표	• 7/8 R&D day 종료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수령), SOTIO, IKSUDA
에스티팜	190,000	106,400	78.6%	•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 수주 기대 (혈액암 추정)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투자, 승강제 등)	• -	•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61,400	-	• NLY-01 L/O 기대	• DD01(MASH) L/O 기대 (11월 말~12월)	• Pfizer와의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1.2M→\$1.7M로 증액하고, 계약기간 '26.11→'28.02로 연장
지아이이노베이션	NR	8,820	-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 ESMO 관련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12,000	-	• 8/31 CPS 전환가능일 시작 (13%)	• Lilly의 P2 진입 확인 및 옵션 행사 • OLX104C(탈모) 1b상 결과 • 유베르나(탈모예방화장품) 시장 출시	• -
알지노믹스	NR	35,250	-	• 신규 L/O 기대 • 9/8 R&D day 개최 예정	• ESMO 관련	• ESMO 채택 시 교묘세포종 데이터 공개할 것으로 예상
인투셀	NR	22,250	-	• -	• 자체 개발 신약 중간 결과 발표	• SBE303 본계약 체결 (7/22)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쉽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15,000	-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7 이후 예상)
펩트론	NR	194,000	-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MTA 계약 종료 10/7 주의)	• -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10월7일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32,100	-	• 신규 L/O 기대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V사의 동물용 창기지속형 CDMO 계약 체결 기대	• -	• -
지투지바이오	NR	44,100	-	• 신규 L/O 기대	• -	• -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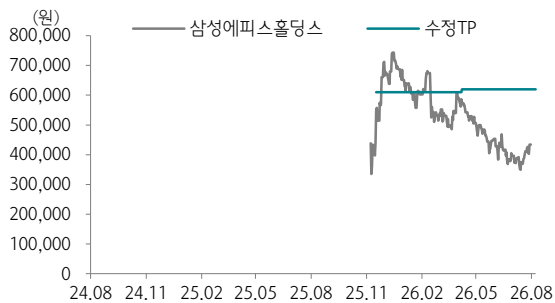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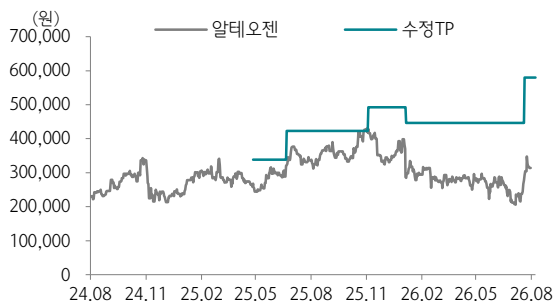
삼성에피소홀딩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7	BUY	620,000		
26.4.24	Neutral	620,000	-27.14%	-8.39%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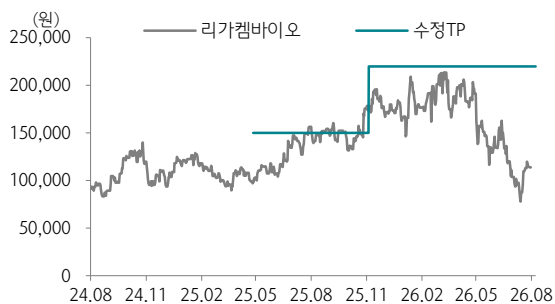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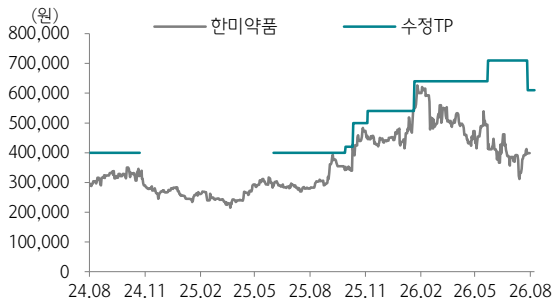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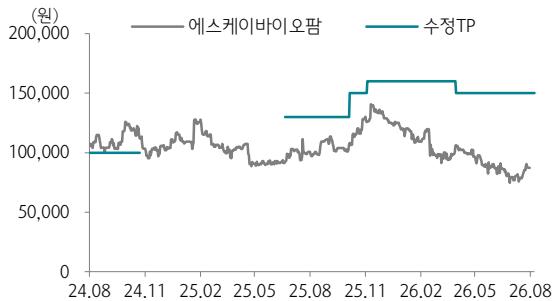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13	BUY	610,000		
26.6.8	BUY	710,000	-44.37%	-35.00%
26.2.6	BUY	640,000	-20.20%	-2.19%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8	BUY	400,000	-24.18%	-1.75%
25.6.9	Not Rated	-	-	-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6	BUY	150,000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9	BUY	190,000		
26.3.9	BUY	210,000	-35.21%	-19.6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 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6%	1.8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15일